

전주형 동네복지 기반 구축 나섰다

동네기획단 발대식 개최... 복지욕구·문제 해결 기대

전주시가 이웃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동네기획단 구성을 통해 '전주형 동네복지' 기반 구축에 나섰다.

시는 6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주시 33개 동장과 동네기획단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동네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동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동장과 사회보장기관 실무자, 복지위원, 자생단체 구성원 등 각 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 등 33개동 총 488명(완산 18동 263명, 덕진 15동 2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네기획단은 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중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다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이다.

동네기획단 위원들은 지역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통해 서로가 보살피는 동네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상부상조하며 돌봄과 나눔,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 지역복

지공동체를 위해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해나가면서 정부의 동북지회화사업과 전주형 동네복지의 성공을 이끌 구심체 역할을 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여 위원들은 선서를 통해 "전주시 3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동네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동네복지와 동북지회화와의 선도지역이었던 평화1동 한 위원은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잘 살피고 보살피,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평화1동의 작은 영웅이 되겠다"며 협의체 위원 역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날 발대식에서는 표경흠 비영리 컨설팅 '켄플' 공동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동네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동네복지 사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인 '법률홈닥터'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전주시는 6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 33개 동장, 동네기획단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동네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각 동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표경흠 대표는 이날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대응 전략의 모색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지역 내의 복지문제는 위원들의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충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복지문제 해결 △드림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수록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동네기획단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6개동을 대상으로 동네복지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국가사업인 동 북지회화사업과 통합해 동네복지를 20개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아중저수지 투신 여고생 실습 빙자한 노동착취 당해

지난 1월 23일 아중저수지에서 발견된 여고생이 자살직전 고등학교 졸업에 맞춰 진행되는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에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6분께 전주 아중저수지 팔각정 난간 아래에서는 전주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A양(19)의 시신이 떠올랐다.

A양은 전날 저수지 인근에서 친구들과 과 놀다 해어진 후 친구들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부터 경찰과 소방본부는 A양의 투신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양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전주시 소재의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맞춰 이뤄지는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막는 'SAVE팀'에서 일했다.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였지만 A양은 이를 끝낼 해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A양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후 회사와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민주노총과 유가족에 따르면 A양은 3개월간 수습을 마친 뒤부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고등학생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7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양은 오후 6시를 넘겨 퇴근하기 일수였다.

A양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아빠 나 오늘도 할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종종 받았다.

이 회사의 'SAVE' 팀에서는 2014년도도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생활치안 실현 위해 소통·화합 강화 주력”

취임 100일 맞는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소회 밝혀

지난해 12월 처음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조희현 청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백일동안 도민들의 삶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온 조희현 청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청장은 전북지역 근무가 처음으로, 지난 백일 동안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경찰생활 삼십여 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한 것이 처음입니다. 취임 초기 낯설고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며 "그러나, 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응원과 함께 미소로 반겨주시고, 현

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5,700여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고 백일간의 느낀 점을 전했다.

취임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부임 백일이 된 시점으로, 아직 어떤 평가를 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며 "지난 백일간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과 지역치안을 위해 다양한 소통을 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치안행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곧이 지난 백일을 평가 하자면, 도민들의 든든한 생활치안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이라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청장이 강조하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생활치안의 의미를 묻자 "전북경찰의 존립이유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밝히며 "따라서 치안활동의 방향은 도민의 생활안정이 우선이고 이를 위하여는 도민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제거하는 치안활동이 필요합니다.

통계상의 치안지표가 안전함을 보여주더라도 도민이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통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 보다는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통 시설개선이나 주요 사고유발요인에 대해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교통안전 확보의 길일 것입니다"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탄소소재 산업 활성탄소 전문 인력 양성

전주시가 탄소섬유에 이어 제2의 탄소소재 산업으로 주목받는 활성탄소 전문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이하 기술원)은 오는 24일까지 활성탄소 전문인력 교육생을 모집한다.

활성탄소는 목재, 갈탄, 아자껍질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소재로, 탈취제와 탈색제, 용액의 정제 등에 이용된다. 활성탄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약 8조원으로 연평균 11%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 정수처리를 제외한 고급활성탄소는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관련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내 고졸이상 미취업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수로 후 활성탄소소재 기업 취업까지 지원되는 채용연계형 교육이다. 교육생들은 40일간 기초지능능력 향상 교육과 활성탄소 이론·실습, 산업안전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생에게는 수강료와 교재비 등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김민근 기자

필리핀 어학연수 폭행사건 CCTV 확보 수사할력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이 인솔교사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건의 현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숙소와 어학원 전체 CCTV가 녹화된 하드디스크를 입수했다.

경찰의 CCTV 확보로 수사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학생 28명 중 11명이 인솔교사 A씨(26,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찰에서 A씨가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도 내뱉었다고 증언했다.

사단법인과 A씨는 폭행사실은 있지만 정당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드디스크를 보내 영상을 복원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보관 기간이 1주일만 불과해 연수를 받은 당시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을 토대로 폭행을 당한 학생과 어학연수를 주최한 사단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노후·소규모 공동 주택관리비용 지원

전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34개 단지에 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을 신청한 70개의 단지 중 풍년주택 등 완산구 17곳과 금암상가맨션 등 덕진구 17곳 등 총 34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를 지원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내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 단지에는 올 연말까지 총 6억

원이 투입돼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 내 담장 철거 후 조경식재, 도로, 지하주차장 LED설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생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는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시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 자체 보수능력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